

한·중 예술 교류의 장 ‘중한·의경’

김정숙 전 국립군산대 미대 교수 현대 미술전, 중국 충칭서 개막… 대표작 100여점 전시

김정숙 전 국립군산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의 현대 미술전이 베이징 수용미술관 전시에 이어 중국 충칭에서 개막하며 한·중 문화예술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칭(한국명 중경)은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곳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등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다.

‘중한·의경(中韩·意境)’ - 김정숙 현대 미술전’은 지난 7월 31일 중국 충칭 왕치 미술박물관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충칭 국제문화교류센터, 베이징 수용 미술관, 국립군산대학교, 충칭시 예술미학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왕치 미술박물관과 구이저우 공정응용기술대학 예술대학이 주관했으며, 서남대학교 중국현대미술학연구소가 학술 지원에 나섰다.

이번 전시에는 김정숙 교수의 30여 년간의 미술 교육과 창작 활동이 집약된 대표작 100여 점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 교수의 작품은 한국 전통 채색화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자연과 인간, 삶의 흔적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의 전시회 개막식에는 중국과 한국의 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중국 측에서는 양광순 충칭 국제문화교류센터 주임, 하설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전시관 서기, 장군 충칭시 미술가협회 부회장, 완빈 충칭시 청년서법가협회 회장, 이서 충칭시 서법가협회 사무국장, 마소걸 충칭시 서법가협회 부회장, 무희하 유명 서화가, 고제민 충칭 선화원 명예원장, 공문부 구이저우 공정응용기술대학 예술대학 학장, 구정훈 서남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충칭시 예술미학학회 회장, 양보 왕치 미술박물관 관장 등 중국의 가라성 같은 예술계 관계자들이 함께해 김 교수의 전



김정숙 전 국립군산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사회를 축하했다.

한국 측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김 교수의 전시를 축하했다.

전시 큐레이터인 완빈 회장은 “중국과 한국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미학적 의경과 예술 철학에서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김정숙 교수의 작품은 자연을 향한 깊은 시선과 한국 채색화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중한 문화 융합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고 김 교수의 작품세계를 높이 평가했다.

김정숙 교수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전통 한지와 다양한 미술 재료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 삶이 남긴 흔적을 표현해 왔다”며 “작품 속 의경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자연과 인간,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적 경지”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서 왕치 미술박물관 양보 관장은 김 교수에게 작품 소장 증서를 전달하며 전시의 의미를 뜻깊게 기념했다.

양광순 충칭 국제문화교류센터 주임은 축사에서 “이번 전시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인문적 대화이며, 예술을 통해 한·중 우호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중한·의경’ 예술 살롱이 열려 김 교수 작품에 담긴 동양 미학과 현대적 표현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연 김정숙 교수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미술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



중한·의경(中韩·意境) - 김정숙 현대 미술전 포스터

며, 국립군산대학교에서 30여 년간 후학 양성과 작품 활동에 힘써오다 지난해 정년을 맞았다.

특히 군산대 미대 교수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혁신적인 자세로 중국인 유학생 60여 명을 지도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등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한국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유학생들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김 교수는 한국 채색화의 주요 전승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화 교육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25일까지 열린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한국과 중국을 잇는 이번 김 교수의 중국 충칭 전시회가 한국과 중국 양국 예술 교류 확대와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4’

문화공간 이룸,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미술·클래식 융합 공연

문화공간 이룸(이사장 이운정)이 대표 기획 공연인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4’가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문화공간 이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명화를 감상하고 클래식 음악을 함께 즐기는 형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술과 음악이 서로를 해석하며 하나의 예술 경험을 완성하는 융합형 공연으로 꾸며진다.

‘명화 따라 클래식 산책’은 매 회차 한 명의 화가를 중심으로 그의 삶과 시대적 배경, 대표 작품을 도슨트의 해설과 라이브 연주를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문화공간 이룸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그림을 설명한 뒤 음악을 들려주는 기존 형식이 아니라 작품이 담고 있는 감정과 메시지를 음악으로 확장해 관객들이 보다 깊이 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시즌4는 카라바조, 르누아르, 로트렉, 몽크 등 서양미술을 대표하는 네 명의 화가를 주제로 모두 네 차례 진행된다.

회차마다 클래식과 재즈, 성악 등 화가의 작품 세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을 선보여 그림 속 분위기와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미술과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관객도 화가의 삶과 시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연주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점도 눈길을 끈다.

첫 공연은 ‘카라바조-빛은 죄를 덮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카라바조의 극적인 명암 표현과 인간의 욕망, 죄와 구원의 세계를 조명한다.

이어 르누아르 편에서는 따뜻한 빛과 행복한 일상을, 로트렉 편에서는 몽마르트르와 불랑부르의 화려한 밤을 재즈 음악과 함께 풀어낸다. 마지막 공연에서는 몽크를



단순히 ‘절규의 화가’가 아닌 삶과 사랑, 생명을 노래한 예술가로 새롭게 조명하며 그의 작품 세계를 클래식 음악으로 깊이 있게 해석한다.

이운정 문화공간 이룸 이사장은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은 그림을 설명하는 공연이 아니라 음악으로 그림을 다시 읽어내는 공연”이라며 “관객들이 화가의 삶과 감정을 음악과 함께 공감하며 예술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준 높은 자체 기획공연을 통해 전복을 넘어 전국적인 클래식 공연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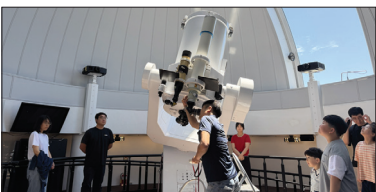
공연 관람료는 빈백석 5만 원, R석 3만 원이며, 문화공간 이룸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는 전 좌석 2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예매는 문화공간 이룸 홈페이지와 네이버 예매를 통해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온 가족 즐기는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원시 천문과 학관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천문과학관은 백두대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대표적인 천문과학관으로, 600mm 대형망원경 및 관측용 전문망원경 6종을 갖춘 관측실, 4D 천체투영관과 함께 해시계, 자력투 등의 과학체험물 14종을 새롭게 활용해 전시 체험콘텐츠를 한층 강



화한것이 특징이다.

또한 낮에는 태양관측, 밤에는 별자리와 행성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간대별로 색다른 천문·우주 과학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새롭게 개관한 호남권 유일의 4K 풀돌 4D영상관은 생동감 넘치는 영상과 입체적인 특수효과를 통해 우주와 과학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콘텐츠로, 스릴 넘치는 모험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동시에 제공해 교육성과 재미를 모두 갖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은 바리스타 로봇이 제조하는 커피와 음료, 소프트아이스크림 등을 즐길 수 있어 과학기술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 하반기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참여자 모집

전주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2026년 하반기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 곳곳의 시립도서관에서는 평일에는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 사이의 영·유아 및 부모 12가족, 주말의 경우 생후 25개월부터 48개월 사이의 영·유아 16가족을 모집해 책놀이와 책 읽어주기 활동을 운영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효자동서관에서는 생후 6~12개월, 송천도서관에서는 생후 13~24개월 각각 12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8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인후도서관에서는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주말 가족과 함께 책 놀이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0~12개월 및 13~48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시 책 꾸러미도 제공할 계획이다.

책 꾸러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전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아기수첩)를 지참해 참여 도서관을 방문하면 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전주도서관 누리집 또는 각 도서관별 전화 및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